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기동 구례군수

‘머무는 관광 구례’ 육성

“체험과 레저를 겸비한 친환경적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레저·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올해 군정의 주요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사찰 관광 문화권과 산동운천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광의면과 산동면을 잇는 방광~탑정간 도로와 피아골 순환 도로 개설 ▲지리산 야생화 테마공원과 산수유 시목지 테마공원 조성 ▲섬진강 주변 생태체험 공간 조성 ▲수라폭



여건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서군수는 또 민박과 관광농원, 농촌 체험장을 활성화하고 ‘1사 1촌 운동’, ‘5도 2촌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지리산 야생화와 곤충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도 주요 사업중 하나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농촌실정에 맞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노인 생명체험대학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종합 휴양 타운 건립을 추진 등 노인들의 레저와 건강, 복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실버복지

사찰·산동운천 연계 개발

포 주변개발 ▲운조루와 연계한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지리산 맑은 공기와 청정하천인 섬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 웰빙과 레저를 접목시켜 한 단계 성숙한 관광구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서군수의 구상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생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 상대적으로 잠재력 구례를 봉납리 일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신

상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구례읍 상설시장의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농업정책 역시 친환경과 접목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회복이라

농산물 판로 확충 역점

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단지를 늘리고, 지역 농·특산물 친환경 재배확대와 유망소득 작목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쌀 소득보전급 지원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추진, 고품질 원에 시설과 환경 친화적 축산시설을 확대지원 하는 등 농업인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열린행정’ 실현

특구 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서군수의 올 군정 운영 방향의 핵심은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다. 사랑방 좌담이나 현장방문 대화 등 장소와 계층에 구애됨 없이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정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다.

서군수는 “진정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토론이나 설명회 등 주민 참여 기능을 활성화 해 여기서 집약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선운산 유스호스텔

고창군 직영 1년 연장

고창군이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창군은 구합 27일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지난해부터 군이 운영을 맡아 왔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혁신도시 유치’ 나주시, 시너지 효과 잇따라

작년 14개기업 1,900억 투자유치

한국3M·남양유업·(주)서희건설 등 속속 참여

나주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단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 1천900여 억원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등으로 14개 기업이 1천900여억원을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접 고용 효과가 690명명에 이르는 등 낙후됐던 나주

지역 경제가 혁신도시 유치 이후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3M이 501억원을 들여 고화도 강화필름 생산 공장 증설을 확정했으며 619억원이 투입되는 남양유업(주) 나주공장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남평 부도심확장사업 일환으로 나래랜드피아가 350억원을 투자, 대

규모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주)서희건설이 지방산단 조성에 244억원을 투자기로 해 민간 자본이 지방산단 조성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에 본사를 둔 ‘그롭 윈’의 경우 500여억원을 들여 ‘주몽’세트장에 대규모 종합무술리조트를 조성하기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주)하늘연FNB’는 50억원을 들여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훈 시장은 “혁신도시를 유치

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활용, 외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관련 된 기업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미래산업단지 70만평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인 투자유치 팀장은 “민간자본으로 지방산단이 조성되는 것은 전국에서 나주시가 처음”이라며 “해당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 사업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보성 ‘대파 손질’ 농한기 소득 한 몫

보성군 문덕면(면장 안길섭) 주민 30여명이 대파 손질 및 포장작업으로 농한기 소득을 올리고 있다. 문덕면 농민회(회장 이형용)는 지난 3일부터 진도산 대파를 문덕에서 포장한 뒤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계속되는 대파 손질 및 포장작업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농외소득이 예상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광산·몽골 성근헤르항구 국제교류 추진

광산구(청장 전갑길)가 몽골과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의 성근헤르항구(區) 눈데우 나이당 구청장 일행 5명은 9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산구를 방문한다.

전갑길 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관계자는 성근헤르항구 방문단과 협의회를 열고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울란바토르 서쪽에 위치한 성근헤르항구는 인구 20만명이 살고 있는 신흥도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전/북/소/식

순창에 김병로 기념관·법관 연수원 건립

전북 순창군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1887~1964) 기념관과 법관 연수원이 건립된다.

대법원은 최근 가인의 생가 인근인 북흥면 하리에 300평 규모의 기념관을 짓기 위해 올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대법원은 또 이 일대에 오는 2009년까지 강의실과 숙박시설 등으로 꾸며진 법관 연수시설(수용인원 60명·연건평 1천300여평)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은 20살때까지 담양 일신학교

와 창평 향흥학교 등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를 졸업했으며 광복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순창군도 가인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창군은 법조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 가인 선생 기념관이 건립되면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se@

고흥 설 4곳 ‘관광·테마’ 개발키로

군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

다도해 청정해역인 고흥지역 4곳의 섬이 관광·테마 섬으로 개발된다.

고흥군은 지난 5일 ‘테마의 섬 개발 기본계획용역 보고회’를 갖고 남양면 우도와 봉래면 수락도, 과역면 진지도, 동일면 시호도 등 4곳을 개발,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주변 절경이 뛰어난 이들 섬은

2010년까지 민자 등 170억원을 투입, 특색있는 섬으로 개발된다. 우도는 가족 갯벌 체험장과 펜션, 전망대가 들어서는 ‘가족의 섬’으로 개발된다.

수락도는 행글라이더 등 레포츠 시설과 탐방로 등을 갖춘 ‘모험의 섬’으로, 진지도는 낚시터와 민박, 농민 등 ‘바다낚시의 섬’으로 개발된다. 40여만평의 무인도인 시호도는 서바이벌 게임장 등 ‘무인도 체험의 섬’으로 탈바꿈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Advertisement for Sens-Mo,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he text '맞춤가발입니다!' (Custom-made hair is here!).

Advertisement for 'Pinnac' (핀넵)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he text '“끈끈한 사타구니 상쾌하게 탈출하세요”' (Get rid of sticky groin with Pinnac!).